

광주, 도로망 확충 1251억 투입...도심 교통혼잡 해소

광주시가 도시 거점을 긴밀히 연결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에 속도를 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도로사업 정부 예산 653억원을 확보, 총 1251억원을 투입해 9건의 도로 사업을 진행한다.

2026년도 도로사업 중 국비 653억원은 지난해보다 283억원(76.5%) 증가한 것이며, 광주시는 여기에 지방비 598억원을 합

호남고속도 확장·상무지구~첨단산단 개설 등 9건 추진

국비 653억 확보 총 1251억 투입...전년도 대비 76.5% ↑

계 투입해 도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상습 정체구간인 동광주 나들목~광산 나들목 구간 호남고속도로에 예산 731억

원(국비50%·지방비50%)을 편성해 확장공사를 한다. 광주시는 오는 2029년까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벌여 기존 4차로 도로를 6차로로 넓힐 계획이다.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 개설사업에는 예산 277억원(국비 133억원, 지방비 144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최대 6차로 규모 도로를 개설해 서구 유촌동과 광산구 산월동을 연결, 빛고을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심과 산업단지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광주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확장(2~4차로) △월전동~무진로(6.25km) 도로 개설 △각화동~제2순환도로 진입로 신설 △금호동~서광주로 도로개설 △서문대로~봉선동 도로(0.76km) 개설 △북구 첨단3지구 진입도로(1.3km) 신설 △남부산단 진입도로(2.0km) 개설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해 교통난 해소에 주력한다.

광주시는 도로사업을 통해 지역 거점 간

연결성과 산단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주인석 시 도로과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광주의 미래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청와대 본관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2022년 5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시대 다시 열다...3년7개월만에 복귀

오전 9시 13분 도착...참모와 차담회 후 위기관리센터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복귀 첫날 집무를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부터 13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께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섰다.

이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가는 길 앞에는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재명 만세” 등을 연호하며 첫 청와대 출근을 환영했다.

본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

렸다. 이는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로,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4일 취임 선서식을 비롯해 중요한 자리마다 이 넥타이를 착용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앞에서 자신을 기다린 위생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 책실장 등 참모진을 향해 “왜 나와 있어요? 아, 이사 기념으로?”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본관에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갖고,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에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다. 대통령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건희, 대통령 등에 업고 매관매직 일삼아”

민중기 특검 종료...20명 구속·66명 기소·수수금품 3억7000만원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여사가 광범위하게 고가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인사를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빌딩 브리핑실에서 그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 압수수색 횟수 등 세부적인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여사 등 총 31개 사건에서 중복 인원을 포함하면 76명에 달한다. 특검팀은 총 2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가운데 20건이 발부됐다. 구속된 인물에는 김 여사를 비롯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 의힘 의원, 이종호 전 블랙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이 포함됐다.

지난 7월 2일 정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지난 28일까지 180일간 수사했다. 민 특검의 지휘 아래 특검보 6명과 수

사 인력 25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팀이 운영됐다. 검찰, 공수처, 경찰, 국제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152명이 파견됐으며, 특별수사관 59명과 행정지원 인력 27명이 추가로 채용됐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 결과로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공적 사

람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은 총 3억7725만원에 이른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 청탁과 공천을 목적으로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1억4000만원 상당)이 가장 고가였으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반클리프앤앳 펠트 명품 귀금속(1억380만원),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게 받은 사별 기념품과 그래픽 목걸이(8029만3000원 상당)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이제 공소유지를 위한 체제로 전환한다. 특검 차원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건은 정리해 검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전남에 특별...'서 계속

공천 일정표를 조만간 제시하고, 이른바 ‘공천 혁명’을 통해 선거 구도의 변화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정 대표는 또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사법 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통일교 특검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사안까지 포함해 엄정하게 다루어 한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선 “정치적 목적의 조작 기소의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며 철저한 검찰과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3분에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묵념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체의 책임을 되새겼다.

광주교통공사, 31일 도시철도 연장 운행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가 오는 31일 밤 동구 5·18 민주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송·신년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 종료 시간인 자정 이후에 총 4대의 열차를 연장 운행한다.

연장 운행 열차는 행사가 개최되는 문화전당역을 기준으로 소태역과 평동역 양 방향으로 각각 00시 30분과 01시 정각에

운행된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새해를 맞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지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가를 위해 연장 운행을 결정했다”며 “광주 시민의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광주도시철도에 변함 없는 사랑을 부닥 드린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 내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2916억 투입

풍수해 생활권 등 신규 27곳 포함 119지구 확정

전남도는 2026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4개 분야 119개 지구(신규 27개·계속 92개) 개선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16억원의 사업비 투자가 확정됐다. 분야별로 풍수해 생활권 19지구 1092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8지구 141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28지구 244억원, 재해위험저수지 24지구 170억원이다. 이는 1998년 사업 도입 이래 역대 최대로 올해(1931억원)보다 985억원이 늘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재해 취약시설과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전남도와 시군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단일 시설별 정비

의 한계를 넘어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종합정비 방식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사업지구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시군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신규 반영 지구는 풍수해 생활권 4지구 84억원(총 사업비 1767억원), 자연재해 위험개선 7지구 74억원(총 사업비 1539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10지구 45억원(총 사업비 1566억원), 재해위험저수지 6지구 13억원(총 사업비 120억원)이다.

안상현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재난취약지역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재해 예방 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해 더 안전한 전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



광주시, 2026년 상반기 승진 인사 의결

3급 4명·4급 15명·5급 30명 등 총 169명 대상

광주시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3급 4명, 4급 15명, 5급 30명 등 총 169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의결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민선 8기 인사 정책에 따라 지난 3년간 운영해 온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핵심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직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3급 승진자는 4명으로 문정환(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 정석희(5·18민주과장),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최경화(대학인재정책과장)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문정환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은 하수관리과장, 상수도사업본부 물운용총괄과장 등을 두루 거치며 토목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다.

최경화 대학인재정책과장은 전남대·조선대 등 지역대학의 글로벌대학 선정에 기여하고, 지역 17개 대학과 ‘라이프 사 업’을 통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등 전략적 인재 육성을 이끌었다.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추진 등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왔다.

손두영 미래산업총괄관은 정책 분석과 발전전략 수립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온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진·보성·장흥, ‘지역활성화지역’ 신규 지정

전남 강진·보성·장흥 등 3곳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가 심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2015년 처음으로 지역활성화지역이 지정된 이후 10년의 지정 기간이 도래해 이번이 다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국토부

는 설명했다. 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진 영월, 총북 괴산, 총남 부여, 전남 강진·보성·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로 추가됐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21개 시·군에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의 공모 사업에 선정될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1차에 지정됐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 가점을 통해 지역수요 맞춤형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700억원이, 기반 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 약 4500억원이 지원됐다. 이현규 기자